

낙농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사례 고찰 ⑰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M목장(상편)



김 동 균

상지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1. 머리말

최근 서울우유가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목장 종합실태조사 결과는 낙농인들의 의식구조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목장경영상의 애로점 중 시설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으며(29.2%), 휴일이 없음을 아쉬워 한 농가가 전체의 27.7%를 나타냈다. 시설자금의 애로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거나 소규모인 집단에서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목장에서는 11%에 불과함) 휴일의 애로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진입안정규모라고 할 수 있는 20-30두급 목장들이 가장 높은 비율(33.5%)로 응답함으로써 “돈을 더 버는 것

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생각은 사육규모가 가장 큰 31두 이상인 그룹에서 낙농경영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관리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재삼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남의 시간을 빌리자”의 의도를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을 뜻한다.

만일 자금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과 자금을 “인간다운 생활”에 투자할 것이다. 생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도시사람들 중에는 “노년에 조용히 은거할 아담한 목장 -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젖소를 바라볼 수 있는 - 을 갖고싶다”는 소망

을 지닌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는 목장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터전이요 낭만의 상징일 것이다. 그러나 목장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낙농 = 낭만”이라는 등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낙농은 오직 피와 땀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전쟁일뿐”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낙농을 진정 사랑하여 정열을 바쳐 일해 온 사람들은 삶의 터전속에 낭만을 심어놓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M목장은 낙농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지낸 경영주의 개성이 살아있으며 목가적인 분위기가 짙은 목장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환경도 함께 살펴볼 기회를 갖기로 하겠다.

2. M목장의 개요

오랜 낙농경영의 역사를 지닌 목장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관리기술상의 독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비교적 시설체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M목장은 24년째 낙농을 하고 있는 A씨의 소유로, 외부인의 방문도 잦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소개될만큼 비교적 알려진 목장이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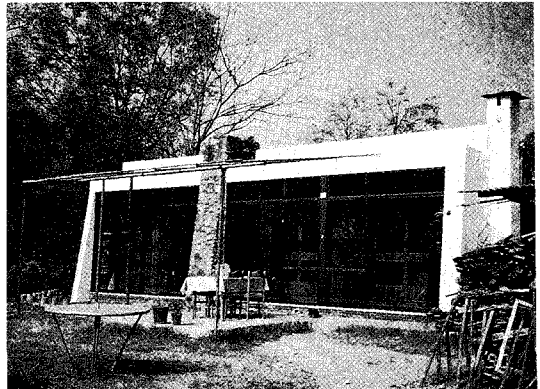
관교 인터체인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이 목장은 총 1만2천평의 땅에 53두(성우 19, 초임우 7, 육성우 19, 비육우 8)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 자가생산한 솜송아지를 비육하여 출하하는 경영체계 즉, 비육우 생산을 겸하고 있는데 이 형태는 선진국의 낙농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거니와 국내 기업목장들도 이 방식의 경영을 도입하였거나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경영형태가 진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 인력은 경영주 자신과 그 아들 그리고 1인의 고용인력이 있다. 기본적인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으며 착유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3. 낭만적인 주거환경

목장경영자들은 그들의 재력에 비해 검소하다 못해 옹색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영연륜이 짧고 한창 확장중에 있는 곳에 더더



〈사진 1〉 아산을 북쪽에 등지고 앉은 M목장의 전경(진입로 입구에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벙커 사일로의 발이다)



〈사진 2〉 예술적이고도 기능적인 경영주의 사택 그는 이곳에서 서울생활 못지 않은 만족을 느낀다.

욱 살 집에 투자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M목장은 삶의 질을 잘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 된 관교지역이지만 목장을 처음 시작할 무렵인 60년대 말엽은 이곳이 꽤 촌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시절부터 경영주는 서울 나들이때마다 틈틈히 필요한 물자들을 사 들고 들어와 삶의 터전을 가꾸어 왔다고 한다.

(사진 2)는 목장주 A씨의 사저인데 목가적인 안목이 잘 드러나 있다. 흡사 고급 아파트 한칸을 잘라 숲속에 심어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주택은 언제나 따스한 햇볕이 잘 들도록 남향 전체를 유리문으로 개방하여 목장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주거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루문과 새

시문 사이에 배란다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는 일광의 침투를 차단하고 그늘을 만들어 주지만 겨울에는 이중창의 효과와 함께 많은 량의 햇볕을 통과시킴으로써 탁월한 보온·난방효과를 준다.

앞뜰 야외식탁은 겨울일지라도 포근한 날에는 야외식사를 즐기는 여유를 준다. 그리고 그 앞에 설치된 비치파라솔(사진에는 테이블만 보이지만)은 한여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야외정담의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

이 목장에는 주인집 말고도 새로 지은 사택이 한 채 더 있다(사진 3), 이집은 목장일을 돕고 있는 작은아들의 거처이자 방문객의 숙소로도 쓰인다. 정면으로 보이는 큰 창은 목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실(사진4)의 창이다. 이 사진은 찍어 온 여학생이 사진설명에 “비 내리는 날에 창가에 붙어앉아 비가 낙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싶다”는 주석을 달 만큼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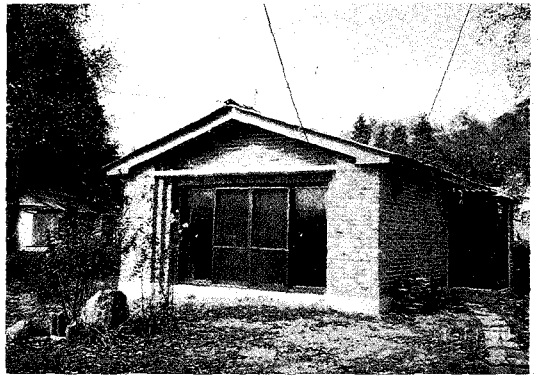
거실은 (사진 5)와 같이 꾸며져 있다. 벽난로와 스키 그리고 소파와 선반의 조화는 서구의 별장을 무색하게 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토론의 한마당을 펼치기도 하고 늦은 밤까지 할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고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거실과 침실(온돌)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목장경영을 분석하고 기획하기 위해 도입한 퍼스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6). 아직 능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머지 않아 장래에 개체관리 및 사양관리를 전산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영주의 안목이 이 수준이라면 수입개방의 시대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4 우사

1) 육성우사

새로 지은 사택앞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낙엽을 밟으며 삼사십미터쯤 걸어 내려가면 육성우사의 뒷편에 닿는다(사진7). 이 우사는 창문이 작고 환기구가 재래식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기에 지은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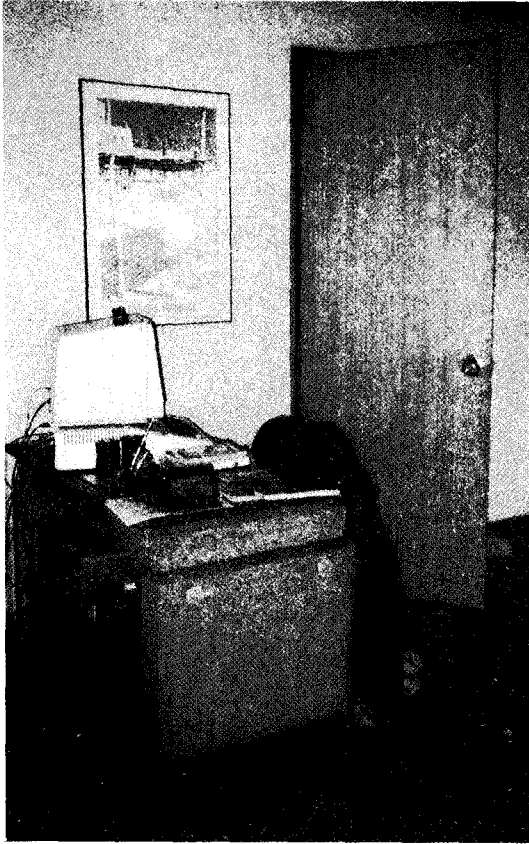
〈사진 3〉 현대감각으로 새로 지은 사랑채(남으로 낸 큰 창은 목장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손님들은 이 집에서 토론도 하고 잠도 잔다)



〈사진 4〉 사랑채 거실에서 본 목장의 운치(창앞에 쌓인 낙엽이 낭만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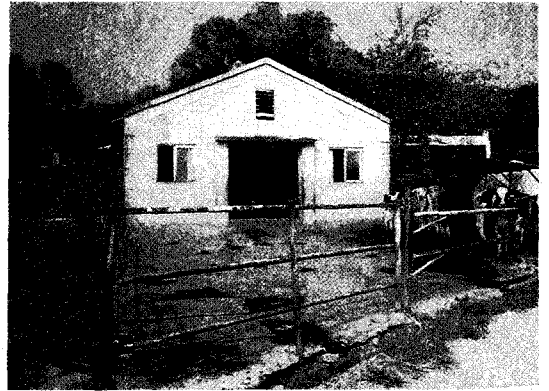
〈사진 5〉 벽난로와 소파가 있는 거실 내부(눈 내리는 겨울밤의 정담을 유혹하고 있다)



〈사진 6〉 거실과 침실의 길목에 설치한 컴퓨터(오가며 손대는 가운데 익숙해질 것이므로 이 목장의 장래가 밝을 것이다)



〈사진 7〉 사랑채 오솔길과 이어진 육성우사의 뒷면(주변의 환경이 접근할 것을 유혹하다)



〈사진 8〉 육성우사의 앞면(포장한 운동장과 야외 채식장을 곁들여 활용하고 있다)

로 보인다. 그러나(사진 8)과 같이 포장된 운동장과 야외 채식장을 보완하여 12두의 육성우 전용우사로 개조하여 쓰고 있다. 이 우사도 다른 목장의 예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전에는 착유우를 수용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경영규모를 확장해온 목장들이 대체로 새로 짓는 우사를 착유우용으로 짓고 과거 성우들이 기거했던 구형 우사는 적절히 개조하여 후보우들에게 대(代)물림하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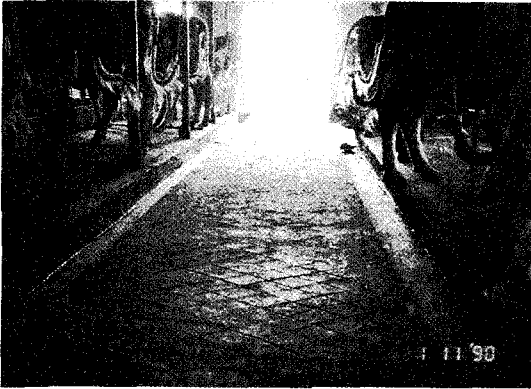
2) 착유우사

착유우용 우사는 외관으로도 육성우사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보여준다(사진 9). 사진 우측의 작은 문은 잇대어짓기(lean-to addition)를 한 송아지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건물의 지붕을 모니터형으로 건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구형 우사에서 환기상의 문제점을 인식했던 것 같다. 출입문은 슬라이딩 게이트(sliding gate: 문지방에 레일을 가설하고 좌우로 여닫는 형태)를 설치하여 실내공간 점유현상을 막았으며 실내는 미대식 계류우상으로 꾸몄다(사진 10). 벽면은 창을 넓게 내고 아래 환기구를 마련하여 환기효과를 높이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사진 11). 그러나 창문의 크기와 개폐구조로 볼 때 실제 개방비율은 창문면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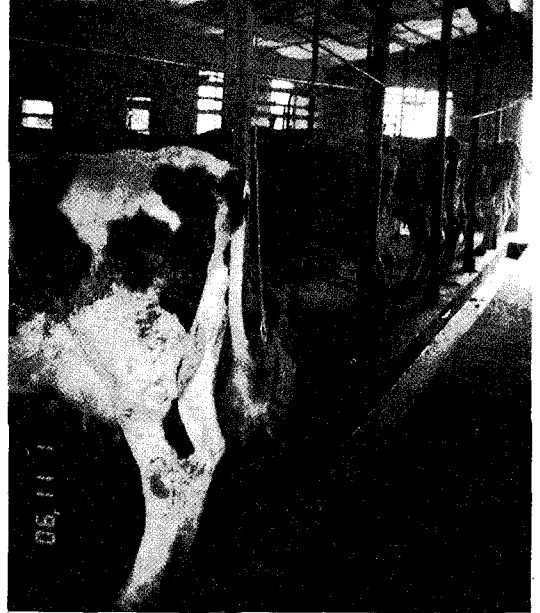
〈사진 9〉 나중에 지은 듯 한 착유우사(환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형 지붕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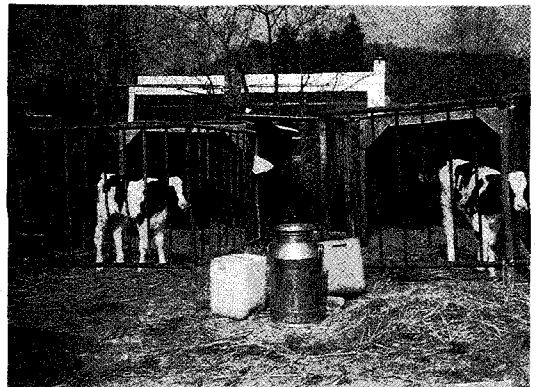
〈사진 10〉 착유우사의 내부(전형적인 대미식 계류우사이다. 파이프라인도 설치되어 있다)



〈사진 11〉 착유우사의 측면구조(아래 환기구와 넓은 창을 설치했으나 창문이 반밖에 열리지 않는 것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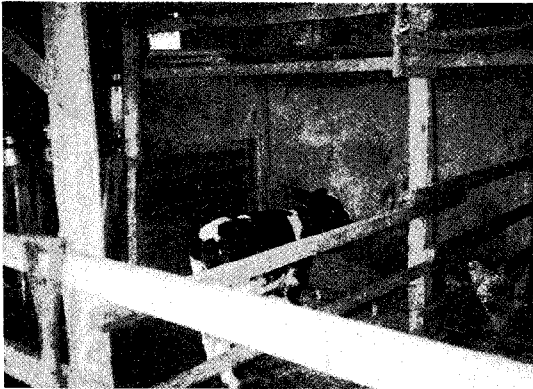
〈사진 12〉 꼬리를 잡아 맨 착유우군(이 장치를 사용하 이래 몸도 깨끗해졌고 유방세척작업도 간편해 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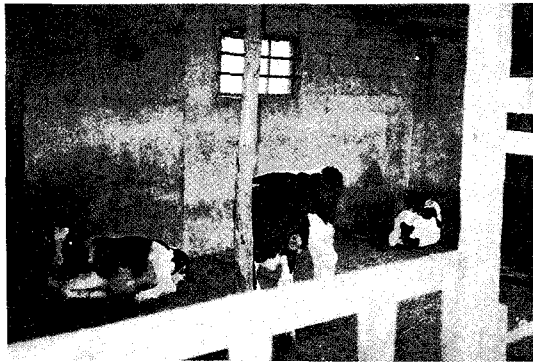
〈사진 13〉 양지바른 명당에 자리잡은 카프허치(주인 사택 바로 앞이어서 어린 송아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1/2에 불과하여 환기의 효과가 떨어지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살내환경에서의 특징은, 환기를 위해 모니터부분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과 천정을 단열재로 처리함으로써 열관리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나



〈사진 14〉 이유 직후의 송아지를 수용하는 송아지방 (당분간 한마리씩 독립수용하여 관리한 후 조사료 적응력이 생기면 집단 수용한다)



〈사진 15〉 송아지 집단수용실(어지간히 자라면 육성우 사료 옮긴다. 바닥면에 깔짚을 깔아주는 것이 좋겠다)



〈사진 16〉 숫송아지 비육우사(비육단계와 체격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선을 끄는 점은 개체의 청결유지를 위해 꼬리절기장치를 설치한 것이다(사진 12). 이것은 분뇨구에 꼬리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꼬리로 인한 유방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착유시 유방세척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작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3) 송아지 관리시설

포유단계의 송아지를 주인 사택 바로 아랫쪽 양지 바른 남향을 골라 3개의 카프헛치에서 관리되고 있다(사진 13). 합판으로 제작된 점과 일정 간격을 띄운 점 그리고 충분한 깔짚을 사용한 점 등은 모두 교과서의 정론대로 실천한 부분이고 울타리를 와이어 매쉬 대신 견고한 파이프로 설치한 점은 이시설의 외관과 내구성에 욕심을 둔 부분이다.

한편, 카프헛치에서 젖 떴던 송아지들은 착유우사에 붙여 지은 별도의 사육공간으로 옮겨져 관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좀 누추한 편이다. 먼저 갖 이유한 것들은 독립수용하여 3개월령까지 기르다가(사진 14) 조사료를 제법 먹기 시작하면 집단 수용하여 길러진다(사진 15). 조사료를 자유급식시키며 농후사료는 제한급여한다. 시설이나 관리체계는 대체로 무난하지만 송아지의 복지를 위해 바닥에 깔짚을 깔아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4) 비육우사

개요에서 밝혔듯이 이 목장은 숫송아지 비육도 한다. 비육용 숫송아지들은 전면이 개방되고 운동장으로 연결된 open-front loafing pen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비육단계에 따라 구분 수용되어 있다(사진 16). 체식장과 급사통로는 지붕으로 덮여있으며, 기둥과 트러스는 목재를 사용했고, 구분책과 헤드레일 등은 간간히 파이프를 쓰고 있다.

어쨌건 매년 생산되는 7~8두의 숫송아지를 모두 비육하여 출하함으로써 천만원 이상의 몫돈이 마련된다는 점은 목장의 살림을 윤택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시설 장비의 현대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편은 다음호에 계속)